이베로아메리카 제12권 2호 [2010. 12] : 27～59

루벤 다리오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중남미 모데르니스모 인물 유형

김 은 희*
(Kim, Eun-Hee)

〈Abstract〉

El tipo de los personajes modernistas en los cuentos de Rubén Darío

La galería de los personajes creados por Rubén Darío en sus cuentos es una muestra del panorama literario, social y cultural a fines del siglo XIX, reflejando un aspecto decimonónico y tradicional dentro del marco de los personajes. Como modernista el autor nicaragüense adopta una serie de figuras típicas del Modernismo como el “dandy”, el “bohemio” e incluso objetos y animales exóticos. Con esta perspectiva variada, Rubén Darío realiza su inclinación hacia la libertad artística.

En términos generales, los personajes de Rubén Darío reflejan el pesimismo de la vida humana, a través de la situación de seres débiles e indefensos como niños y mujeres. A veces la falta de fe que reside en el interior del autor forma parte del pesimismo del personaje, mostrando un conflicto espiritual y una desilusión por la vida. Y además, la participación en los problemas sociales revela un factor negativo de la sociedad de aquella época. Con una visión

*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스페인어과
E-mail: keh-hyk@hanmail.net

sociológica, los objetos y animales que sirven de mensajero o defensor del pueblo hispanoamericano, representan la preocupación social del autor como personaje. A su vez, los artistas que ocupan un papel importante en el marco del personaje, proyectan también un mundo complicado, lleno de miseria y desesperación por no lograr su ideal artístico.

En suma, podemos percibir que el personaje de Rubén Darío configura con frecuencia el relato, haciendo girar la acción en torno a su significado como protagonista, ya sea la mujer, el hombre, el niño, el animal o el objeto. Por otra parte, el personaje resulta ser, tras el análisis, un aspecto que mejor permite adscribir a Rubén Darío al Romanticismo o al Modernismo. De este modo, el autor nicaragüense se convierte en uno de los abanderados del movimiento modernista.

[Key Words: Personajes/ Rubén Darío/ Cuento Modernista Hispanoamericano]
[주제어: 인물들/루벤 다리오/중남미 모데르니스모 단편소설]

Ⅰ. 서론

본 연구는 중남미 모데르니스모(Modernismo)의 대표작가인 루벤 다리오(Rubén Darío)의 단편작품들을 인물중심으로 분석하여 특징적 유형을 밝혀내고 그것들을 통해 19세기말 중남미의 문학적, 사회적, 문화적 양상들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데르니스모 작가로서 루벤 다리오는 이 문학경향의 전형적인 인물유형이라 할 수 있는 “댄디(dandy)”나 “보헤미안(bohemia)”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사물까지 다양한 인물들의 전

개를 통해 예술의 자유를 향한 그 만의 열망을 작품 속에 담아낸다. 일반적으로 루벤 다리오의 인물들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비관적 측면을 강조하여 보여주는 경향이 짙다. 이는 여성과 어린이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비극적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작가 자신의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신에 대한 회의가 삶의 환멸과 정신적 갈등을 표출하며 인물의 비관주의를 대변하기도 한다.

루벤 다리오 단편작품의 인물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예술가이다. 현실세계에서 예술적 이상을 실현하지 못함으로 인한 절망감과 빈곤함으로 고통 받는 예술가는 어렵고 복잡한 인간의 회의적 삶의 모습을 투영한다. 이러한 점은 중남미 모데르니스모 인물의 전형적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정신적 이상의 추구가 삶의 목표인 예술가에게 최대의 걸림돌은 물질 즉 현실이 된다. 그 속에서 예술적 자유를 지키려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모습에서 이 인물은 문학적이기 뿐만 아니라 심히 인간적이라 볼 수 있다.[1] 이러한 인물들의 특징적 요소들을 통해서 루벤 다리오의 문학에 대한 실제적 사고들과 삶에 대한 고찰이 가능하리라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루벤 다리오의 단편작품 총 78편이 수록된『단편 전집 Cuentos Completos』을 텍스트로 하여 “남성 인물”, “인물로서의 여성”, “아동과 사회에 대한 항의” 동물과 사물 등의 구체적인 주제들과 더불어 인물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Ⅱ. 남성 인물

19세기말의 예술과 모데르니스모의 남성인물 범주 내에서 대표적으로

1) María de los Desamparados Muños Reoyo(1986), *Los personajes en la narrativa modernista hispanoamericana,* 448.

“댄디”와 “보헤미안” 이렇게 두 인물의 형상이 두드러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이들 인물은 부르주아적인 근대화 사회 앞에서 19세기말의 많은 작가들이 심각하게 느끼는 삶에 대한 환멸과 비관주의를 대표한다. 비평가 한스 힌터하우저(Hans Hinterhäuser)에 의하면 “댄디”의 모습은 우아함, 형식 성, 그리고 악습에 이끌리는 성향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또한 대부분 이들은 귀족계급의 신분을 가진다.[2] 귀족 상류사회에 젖은 “댄디”는 자신의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개성화를 창조하기 위해 실리주의에 맞서 투쟁한다. 따라서 “댄디”의 최후는 실패자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실패감은 결국 물질만능의 부르주아 사회 속에서 “댄디”를 고독과 죽음으로 이끈다.

한편, “보헤미안”의 모습은 루벤 다리오의 단편들 속에서 독특한 미학적 경향을 보이며 전형적인 모데르니스모의 인물 특징으로 자리 잡는다. 즉, 예술가는 소외된 존재로서 상업적이고 청교도적인 사회가 배척한 쓸모없는 예술적 천재로 전락한다. 소외감 속에서 예술가는 본질적으로 현실세계가 아닌 가공세계의 왕 또는 유배자가 된다. 이렇듯 “보헤미안”은 문학양식으로서의 모데르니스모에 다소 사회적이고 미학적으로 다가간다. 그렇다면 루벤 다리오 단편속의 대표적 남성인물인 “댄디”와 “보헤미안”의 특징에 대해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댄디

일반적으로 작품 속에서 댄디의 역할은 귀족적 취향, 거만함, 예술애호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비평가 루이스 안또니오 데 비예나(Luis Antonio de Villena)에 따르면 인물로서의 댄디는 미학에 전념하는 존재로

2) Hans Hinterhäuser(1980), *Fin de siglo. Figuras y mitos,* 92.

반항적 태도를 견지하며 자신의 삶으로부터 예술을 창조한다. 또한 댄디는 자기중심적이고 냉정하며 거만하기까지 하다.[3] 이러한 유형의 첫 인물은 루벤 다리오의 단편 「부르주아 왕 El rey burgués」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작품의 주인공은 어느 먼 나라의 강력한 왕으로 예술에 심취하여 시인, 악사, 화가, 조각가들로 둘러싸인 궁정에서 음악과 떠들썩한 축제로 화려한 인생을 즐기는 인물이다. 다음 예문에서 보듯이 왕의 예술적 취향은 그의 궁전의 환상적이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통해 나타난다.

> 왕은 엄청난 부와 훌륭한 예술품들로 가득한 경이로운 궁전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흰목의 백조들이 인사하는 연못과 무성한 붓꽃들 사이를 지나 궁전에 도착했다. 멋진 취향이다. 왕은 솔로몬왕의 옥좌처럼 대리석으로 만든 사자상들이 양옆에 있는 유리 빛의 석고기둥으로 가득한 계단으로 올라갔다. 품위가 돋보인다.[4]

이러한 예술적 취향 외에 왕은 그 어떠한 것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는 타인이나 세상에 대한 냉혹함까지 보인다. 어느 날 굶주린 시인 한 명이 왕을 찾아오자 오로지 자신의 세계에만 유폐되어 있던 왕은 철저한 무관심으로 일관한 채 배고픔을 호소하는 시인에게 위압적인 단 한마디 말만을 건넨다: “말하라, 그럼 먹게 될 것이다.” 남성인물 댄디의 주요 특성 중 하나인 냉정함에 대해 루이스 안또니오 데 비예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댄디는 어떤 일에도 결코 놀라지 않는다. 오히려 그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제공한다. 냉정함이나 자발적인 무감각성 등은 댄디의 대표적 행동양식 가운데 하나이다. 그의 냉정함은 인

3) Luis Antonio de Villena(1983), *Corsarios de guante amarillo,* 19.
4) Rubén Darío(1950), *Cuentos completos*, 127. (이후에 본문에서 인용되는 부분은 해당 페이지만 명기하도록 한다.)

간의 통속적 혹은 정상적 감정들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며 동시에 삶 자체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5]

결국, 시인의 예술가로서의 고달픈 인생사를 모두 듣고 난 후 왕이 내린 결정은 황당하게도 매일 자신이 백조가 노니는 연못가를 산책할 때 옆에서 묵묵히 뮤직 박스를 손으로 돌려 각양각색의 음악을 들려주는 일이었다. 따라서 시인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쉼 없이 뮤직 박스를 돌려야만 했다. 왕은 음악 한 곡당 빵 한쪽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왕에게는 시인의 존재가 자신을 위한 하찮은 부속품들 중 하나일 뿐이다. 인간적 동정심이나 문학가의 진정성 등을 알고자 하지 않은 채 철저한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그에게는 단지 자신의 예술적 취향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루벤 다리오의 또 다른 단편 「중국 황후의 죽음 La muerte de la emperatriz de la China」에서 볼 수 있듯이, 가끔은 댄디의 모습이 복잡한 사랑 놀음에 열중하는 호색주의를 연상케 한다. 이것은 댄디의 대표적 행동양식 중 하나로, 댄디들은 흔히 그들이 속한 사회 속에서 사랑을 삶의 법칙으로 삼는 특징을 보인다.[6] 그러나 이는 단지 형식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 댄디는 결코 돈 후안의 후계자가 아니며, 상대를 유혹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만 그것은 사랑을 위한 것이 아닌 미적 감정을 위한 것이다. 그는 그 자신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과는 거리를 두고자 한다. 단지 사랑 놀음을 즐기며 자신의 열정을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시키는 것이다.[7] 앞선 말한 작품 속에서 주인공인 레까레도(Recaredo)의 모습을 통해 이런 유형의 댄디를 만날 수 있다. 조각가로서 미를 추

5) Luis Antonio de Villena(1983), op.cit., 20.
6) Hans Hinterhäuser(1980), op.cit., 74.
7) Luis Antonio de Villena(1983), op.cit., 23

구하는 그의 모습은 작업실의 전경 속에 그대로 드러난다.

> 레까레도는 자신의 예술을 사랑했다. 그는 작품에 대한 열정이 뛰어난 조각가였다. 대리석을 가지고 눈동자가 없는 흰색의 차분한 눈을 가진 훌륭한 나신들을 만들어 냈으며, 그의 작업실은 금속재료로 만들어진 동물들, 끔찍한 형상의 도깨비 목들, 식물로 된 긴 꼬리를 가진 괴수들, 그리고 신비주의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고딕풍의 작품 등 말없는 다양한 조각상들로 가득했다. (201)

이러한 예술적 열정뿐만 아니라 레까레도는 많은 여인들과의 로맨스에 또한 열정을 보인다. 수세떼(Suzette)와 결혼해 신혼생활을 만끽하던 중 아시아 지역을 여행하는 절친한 친구로부터 결혼선물로 "중국 황후"라 칭하는 신비한 중국 조각상을 선물 받고 이에 완전히 반해버린 레까레도는 작업실의 한쪽에 별실을 만들어 이 조각상을 보물처럼 소중하게 보관하여 수시로 감상하는 것을 즐긴다. 이를 질투하는 수세떼의 과민반응에 레까레도는 급한 변명을 위해 자신의 지난 로맨스들을 털어놓고 만다.

> 내가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과거 한때 사랑의 소야곡을 불러줬던 금발머리 에울로히아(Eulogia)를 말하는 거야? 그녀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그럼, 흉상을 만들어 준적이 있는 검고 긴 머리에 석고처럼 흰 피부를 가진 부자아가씨 가브리엘라(Gabriela)를 말하는 거야? 아니면 이글거리는 두 눈에 가는 허리와 풍만한 가슴을 가졌던 무용가 루이사(Luisa)? 그것도 아니면 웃을 때 반짝이는 치아들 사이로 붉고 고양이 같은 혀끝을 내밀곤 하던 미망인 안드레아(Andrea)? (205)

수세떼의 질투의 대상이 이 여성들 가운데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중국

황후"임을 알게 된 레까레도는 망연자실해한다. 게다가 분노를 이기지 못한 부인은 남편이 그토록 아끼고 숭배하는 이 동양의 신비로운 조각상을 산산조각 내버린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각가인 레까레도는 미에 대한 정열이 남달라 그것이 과거 로맨스의 대상이든 예술품이든 상관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예술적 충동에만 집착하는 전형적인 댄디의 모습을 보인다. 다음과 같은 수세떼의 마지막 말 속에는 남편의 이러한 충동적 미학 성향에 대한 강한 불만과 항의가 담겨있다: -난 복수했어! 이제 당신에게 "중국 황후"는 죽은 거야!

마지막으로, 단편 「파란나라에서 온 편지 Carta del país azul」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댄디는 파란나라에 사는 시인이다. 파란색이 의미하듯이, 그가 살아가는 곳은 평범한 지상이 아닌 마치 천상의 한 부분처럼 신적이고 예술적인 분위기로 둘러싸인 특별한 공간이다. 따라서 그가 접촉하는 사람들 역시 조각가와 같은 예술가이거나 설교를 하는 신부 또는 시적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운 여인 등이다. 이들 모두는 숭고한 이상을 추구하고 순수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로 영적인 면에서 시인과 동일시된다. 다음 예문에서는 시인의 모습을 통하여 비춰진 예술을 사랑하는 댄디의 인물특성이 잘 나타난다.

> 나는 아름다움을 사랑한다, 특히 나체의 미를. 나는 비너스, 달의 여신 등의 아름다움도 사랑한다. 그렇다, 나는 이교도이다. 고대 신들의 숭배자이며 고대 시대의 시민이다. 나는 주피터 신 앞에 고개를 숙인다. 왜냐하면 그는 번개와 독수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목자의신 Pan을 사랑하는데, 그 이유는 나처럼 음악과 박카스신의 찬가를 애호하기 때문이다(140).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루벤 다리오의 단편작품 속에 등장하는

댄디의 공통적 특징은 예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상류사회에 속하는 부류로 미의 추구를 통하여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심미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이들은 자신들만의 예술세계에 유폐되어 결과적으로 사회에서 고립되는 경향을 보이며 타인이나 세상사에 철저한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따라서 언제나 고독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댄디는 19세기말의 지식인들이 경험했던 삶의 공허함과 비관주의를 대변하는 인물로 해석된다.

2. 보헤미안

루벤 다리오의 단편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보헤미안의 인물 특성은 모두 예술가, 그 중에서도 시인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숭고한 예술적 열망에 적대적이고 인색한 사회 속에서 희생자로 전락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근대 부르주아 사회는 빠져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물질만능의 사회 앞에서 19세기말의 예술가들이 경험한 정신적 갈등에 대해 라파엘 구띠에레스 히라르도뜨(Rafael Gutiérrez Girardot)는 지적하기를 "어떤 경우에도 이제 더 이상 예술은 정신적인 것에 대한 최상의 표현은 아니었다. 그것의 실제 역할은 주변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이 사회가 관심 갖는 것은 돈, 산업, 무역, 사회적 신분상승 등 이른바 물질적 가치들이다." 라고 말한다.[8]

작품 속에서 부르주아 사회의 희생양이 된 보헤미안의 몇몇 예를 들어 보자면, 먼저 단편 「파랑 새 El pájaro azul」가 있다. 가르신(Garcín)이라는 젊은 시인청년이 프랑스 파리의 허름한 다락방에서 자신의 예술적 이상을 위해 삶과 힘겨운 투쟁을 벌이다가 결국 자살로 짧은 생을 마감

8) Rafael Gutiérrez Girardot(1983), *Modernismo*, 47.

하는 이야기이다. 그는 죽어서 파랑새가 되어 그가 열망하던 세계로 자유롭게 날아가는데, 여기서 파랑새란 자신이 생전에 썼던 시의 제목으로 시인의 이상세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파랑 새는 가르신 자신과도 동일시 된다. 가르신의 죽음의 직접적인 동기는 그의 시상의 매개체였던 이웃집 여인 니니(Niní)의 급작스런 죽음이었다. 그녀가 떠난 후 그에게는 삶도 예술도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한 채 깊은 절망만이 남겨진다. 그가 친구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 속에 이미 죽음이 암시되어있다.

> 내 시의 마지막 부분을 들려줄게. 니니는 죽었어. 봄이 오고 그녀는 떠났어. 더 이상 그녀를 위해 들판에서 오랑캐꽃을 꺾지 않아도 돼. 이제 시의 에필로그만 남았네. 출판업자들은 나의 시를 읽어보려 조차 않아. 너희들도 곧 모두 뿔뿔이 흩어져야 할 거야. 시간의 법칙이니까. 에필로그의 제목은 이렇게 될거야: "파랑 새가 파란 하늘로 날아오른 방법에 관하여"(95).

단편 「황금의 노래 La canción del oro」에서는 절대빈곤에 빠진 또 하나의 시인이 등장한다. 넝마를 걸치고 창백한 얼굴을 한 그의 행색은 그가 우연히 멈춘 어느 호화저택의 대문 앞의 전경과 대조되어 더욱 더 비참하게 비춰진다. 그 집의 주인으로 보이는 부부가 행복에 겨운 표정으로 마차에서 내리자 시인은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시를 읊조리는데 그것이 바로 "황금의 노래"이다. 다음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황금이 상징하는 부와 안락함, 아름다움, 행복, 그리고 예술 등은 가난으로 인한 삶의 고통을 짊어진 시인에게 결코 현실세계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신기루로 보일 뿐이다.

> 시인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 단테풍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주머니로부터 거무스름한 빵을 꺼내 베어 먹은 그는 바람에 자신의 찬미가를 흘려보냈다. 한 입의 빵을 깨물어 먹은 후 읊는 그의 시 구절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끔찍한 것이었다. 황금을 노래하자! 산산이 부서지는 햇살의 파편들처럼 어디로든지 행복과 밝은 빛을 인도하는 지상의 왕인 황금을 노래하자!(143)

시인이 절망과 비탄에 잠겨 자조적으로 부르는 황금의 노래의 전체내용은 이 세상의 모든 부자와 가난한 자, 밝음과 어두움, 성공과 실패 등 이분법적 비유가 주를 이루며, 이는 사회 소외계층들의 비극적 삶을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 그 가운데에서도 시인의 삶은 다른 어떤 소외계층보다 더욱 더 절망적으로 묘사된다. 여기에는 시인의 재능을 인정해주지 않는 무지한 물질만능의 사회에 대한 반감과 부당한 삶에 대한 회한이 담겨있다.

> 이봐요, 비천한 사람들, 취객들, 째지게 가난한 사람들, 매춘부들, 거지들, 부랑자들, 소매치기들, 도적들, 거지들, 순례자들, 추방자들, 게으름뱅이들, 그리고 특히 시인들! 우리 모두 행복한자들, 권력자들, 재력가들과 같은 이 땅의 영웅들에게 합세합시다! 황금을 노래합시다!(145)

예술에 무관심한 부르주아 사회 속에서 비극적인 삶을 영위하는 보헤미안의 마지막 예로 단편 『부르주아 왕 El rey burgués』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작품에서 댄디의 전형적인 인물유형을 보여준 부르주아 왕과 대조를 이루는 가난한 시인은 먹을 것을 위해 왕을 찾아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만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왕이 내린 최종 결론은 잔인하게도 시인에게 뮤직 박스를 손으로 돌려 음악을 내보내 왕의 산책길을 즐겁게 하는 일이었다. 한낱 소모품에 불과한 광대와 같은 존재로 전락한 시인은

왕 앞에서 무너져버린 자신의 예술적 이상에 대해 환멸을 느끼며 절규한다.

> 오, 시여! 어쨌거나 리듬은 퇴폐적이 되고, 여자들의 점들이나 찬양되고, 시럽처럼 달작지근한 시들만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하, 구두장이는 제 시들을 비판하고 약국의 약사선생은 제 영감에 점과 콤마를 찍는답니다. 전하, 바로 귀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상, 이상... (130)

이렇듯, 작품 속의 시인은 예술을 위한 이상세계와 비참한 현실사이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고통 받고 환멸을 느끼는 보헤미안의 형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고 등을 돌리는 무지한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시인은 깊은 절망감을 느끼며 결국 사회의 낙오자가 된다. 그러나 그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음악 한 곡당 빵 한 조각을 구걸하던 시인은 겨울이 오자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추위를 느낀다. 삶의 희망을 잃는 순간 그의 뇌는 굳어버리고 그는 더 이상 시인이 아닌 굶주린 악마의 형상으로 변질된다. 다음 예문에서 보듯이 시인의 최후는 더 없이 처절하고 비극적이다.

> 그는 다음날의 태양이 솟아오를 것을 생각하며 죽어 있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있는 이상을 생각하며..., 그리고 또한 예술은 바지를 입는 것이 아니라 붉은색 혹은 황금색의 망토를 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는 그렇게 죽어 있었다, 다음날 왕과 신하들이 악마의 모습을 하고 마치 얼어 죽은 한 마리 참새처럼 입술에는 쓰디 쓴 미소를 머금고 손에는 여전히 뮤직 박스의 손잡이를 잡은 채 죽어 있는 그의 가련한 모습을 발견할 때까지..... (131)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보헤미안은 예술적 이상을 통한 성공적 삶을 갈망하지만 그것이 실현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좌절감과 소외감 그리고 절대적 빈곤을 체험한다. 앞서 살펴 본 댄디의 모습과는 달리 보헤미안은 자신들의 예술을 위한 이상과 자유를 헛되이 꿈꾸며 가난과 절망, 상실감 등으로 가득한 불행한 삶을 사는 인물 특성을 보인다. 보헤미안에게 삶이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빚어진 정신적 갈등 그리고 배고픔을 향한 일상의 투쟁을 의미한다. 결국, 가난한 예술가들의 운명은 죽음이나 자살과 같은 비극적인 방식으로 끝을 맺는다. 이를 통해 루벤 다리오가 작품에서 보여주는 보헤미안의 이미지는 이야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댄디와는 반대로 주변상황의 희생자가 되어 비참함과 감상주의에 빠진 낭만주의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인물로서의 여성

루벤 다리오 단편에서 여성인물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는 다수의 작품에서 여성에 관한 주제가 사랑에 관한 주제와 혼합되어 나타나기도 하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에 기인한다. 작품 속에서 여성인물은 모데르니스모의 목표가 아름다운 대상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여성 고유의 아름다움과 다정함을 통해 작가의 예술적 영감의 근원을 이룬다.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통해 루벤 다리오의 여성에 관한 시각을 살펴 볼 수 있는데, 흥미롭게도 한편으로는 순수함, 순결함을 상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악함과 악덕으로 특징지어지는 이중성에 근본적으로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악자적 여성, 낭만적 여성 그리고 이상적 여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악자적 여성

악자적 여성에 관하여 한스 힌터하우저는 지적하기를 “남자들의 가슴을 숱하게 무너뜨린 이 ‘아름다운 파괴자’는 마치 연구되고 고려되어야만 할 19세기말의 유일한 여성의 상징인 것처럼 오랜 시간동안 모든 예술가와 문학가들을 매료시켜왔다” 라고 한다.[9] 또한, 상반된 성향의 매력을 발산하는 악자적 여성의 모습을 모데르니스모의 전형적인 여성인물로 본 마누엘 마차도(Manuel Machado)에 따르면 “모데르니스모적 여성은 금발이면서 연약함을 지닌, 사악하면서도 신비로운, 성녀인 듯 보이면서 프랑스 파리의 고양이 같은 모습이다. 그리하여 이야기 속에서 감상적인 면과 사악한 면이 혼합된 형태로 이 여성상을 특징짓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않은 채 두 가지 성향을 모두 보여 준다”[10] 이와 같은 비평가들의 견해를 참고로 하여 악자적 여성의 몇몇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단편 「흰 비둘기들과 갈색 해오라기들 Palomas blancas y garzas morenas」은 루벤 다리오의 자전적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여기에는 작가 자신이 젊은 시절에 순정을 바쳤던 사촌누나 이네스(Inés)가 등장한다.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그녀가 몇 년이 흐른 뒤 완벽한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자 주인공(나)은 곧 사랑에 빠진다. 이네스의 믿기 어려운 아름다움 때문이었다. 그녀의 눈에 띄는 미모는 그림 속에나 등장할 법한 신비한 여인이나 먼 나라 공주의 이국적인 매력을 생각나게 하며 관능미까지 갖추고 있다. 다음에서 보듯이, 한 여인의 아름다움을 구성하

9) Hans Hinterhäuser(1980), op.cit., 92.
10) Ricardo Gullón(1983), *Simbolismo y modernismo*, 263.

는 이 모든 요소들이 다양한 색상을 통한 시각적 영상 속에서 더욱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이네스는 이제 15살 반이 되었다. 햇살에 비친 그녀의 금빛 머리카락은 보물같이 귀해 보였다. 정면에서 바라본 그녀의 얼굴은 약간 붉은 빛이 도는 하얀색으로 무리요(Murillo)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인의 모습이었다. 가끔 그녀의 옆얼굴을 바라보다보면 시칠리아의 도시인 시라쿠사(Siracusa)의 멋진 메달을 떠올리게 되고, 때로는 어떤 공주의 모습을 보게 된다. 단단하게 부풀어 오른 그녀의 앞가슴은 은밀한 최고조의 몽상을 불러왔으며 울림이 있는 맑은 목소리, 말로 다 할 수 없는 푸른 두 눈동자, 삶의 향기와 자줏빛으로 가득한 입은 이러한 몽상을 더욱 더 부추겼다.(159)

그러나 이네스는 자신의 요염한 자태와 관능미에 사촌동생이 마음을 빼앗겨 사랑고백까지 하게 되자 마치 그것을 즐기기라도 하듯 비웃음으로 대처한다. 그녀는 순진한 청년에게 억누를 수 없는 유혹의 대상이었으며, 결국 그의 가슴에 상처를 남긴 채 사라진다. 이네스의 신중하지 못하고 경박한 성격은 사촌동생의 고백 사실을 할머니에게 달려가 알림으로써 그를 수치심과 당혹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대목에서 잘 나타난다. 그녀는 뛰어난 외모와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이지만 이에 상응하는 인격을 갖추지 못한 전형적인 악자적 여성의 모습을 보인다.

> 별안간, 그리고 찡그린 얼굴로 그녀는 말하기를: -너 알지! 바보짓 이라는 거... 그리고는 잽싼 한 마리 고양이처럼 할머니가 조용히 기도를 드리고 계신 곳으로 뛰어갔다. 그녀는 못된 여학생의 염치없는 웃음으로 깔깔대며 진득하지 못한 태세로 말하기를: -저기, 할머니! 쟤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네스의 방정맞은 웃음소리가 할머니의 기도를 중단시켰고 할머니는 묵주 알을 매만지시며 생각에 잠기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보

> 던 나는 울고 말았다. 그렇다, 남자로서 처음으로 느낀 환멸 뒤 흘리는 쓰디쓴 눈물이었다(160).

한편, 또 다른 악자적 여성의 예를 단편 「루비 El rubí」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땅의 정령들이 등장하여 온갖 보석들로 둘러싸인 신비롭고 환상적인 그들의 터전을 소개하며 세상에서 유통되는 가짜 루비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제거하는 일이 자신들의 새로운 임무임을 밝힌다. 이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이며 노련한 정령인 뿍(Puck)은 대도시인 파리를 샅샅이 뒤진 끝에 가짜 루비를 발견해 동료들 앞에 내놓으며 루비에 얽힌 옛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야기에 따르면, 젊은 시절의 뿍은 지상에서 우연히 한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첫 눈에 반하여 그녀를 자신의 터전으로 납치해 사랑을 나누게 된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정령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할 만큼 눈부셨다.

> 사랑하는 여인은 유리로 만든 침대위에 마치 여신처럼 눈부신 나신으로 누워서 쉬고 있었는데 그녀는 사파이어로 된 화분들 속에 있는 인간 장미 같았다. 그러나 나의 처소 깊은 곳에서 나의 여왕, 나의 사랑, 나의 아름다운 여인은 나를 기만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155).

뿍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차게 만든 아름다운 여인은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도망을 가려다 날카로운 다이아몬드의 깨진 칼날에 찔려 죽음으로써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그녀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연지 빛 피가 다이아몬드에 스며들어 결국 루비라는 보석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담담하게 후배 정령들에게 루비에 얽힌 비화를 들려주는 뿍은 과거의 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회한에 젖으며 자신의 절망적인 사랑의 마지막 순간을 다음과 같이 기억한다.

> 아! 암석사이의 벌어진 틈으로 도망가려던 나의 아름다운 벌거숭이는 수선화 같고, 대리석 같고, 장미 같은 희고 부드러운 자신의 육체를 깨진 다이아몬드의 날카로운 칼날에 그만 망가뜨리고 말았다. 그녀의 상처 입은 늑골에서는 피가 흘러내렸고 신음소리는 눈물이 날 정도로 애처로웠다. 오! 고통이여! 잠에서 깨어난 나는 그녀를 양팔에 안고 뜨거운 키스를 퍼부었다. 그러나 피는 주변을 온통 적신 후 커다란 다이아몬드 덩어리를 연지 빛으로 물들였다. 그녀에게 키스할 때 나는 그녀의 붉은 입으로부터 나온 어떤 향기를 느꼈는데, 그것은 영혼이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축 처져 있었다(156).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루벤 다리오의 단편 속에서 관찰되는 악자적 여성은 외형적 아름다움과 내면적 사악함이 공존하는 이중적 모습을 그 특징으로 한다. 작품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이 여성인물들의 공통적 아름다움은 관능미를 가진, 여신에 비유될 만한 경이로운 아름다움이다. 반면에 성격적으로는 냉정함, 무관심, 무감각성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갖춘 악자적 여성은 19세기말의 예술과 문학의 전형적인 여성상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루벤 다리오의 단편에도 뚜렷한 흔적을 남긴다. 이 점에 관하여 릴리 리트박(Lily Litvak)은 요약하여 말하기를 "신화적으로 볼 때에도 영원한 여성성은 어쩔 수 없이 악함에 연결된다. 특히 19세기말은 귀족 여인들, 가혹한 왕녀들, 오명으로 유명한 여인들에게 열광하는 시기였다. 마누엘 마차도와 마찬가지로 플로베르(Flaubert)와 고띠에(Gautier)역시 클레오파트라에 심취했다"라고 한다.[11]

이렇듯, 악자적 여성은 여러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매력이 있긴 하지만 그녀의 행동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불행을 야기 시키는 운명적 사악함의 임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단편들의 경우처럼

11) Lily Litvak(1979), *Erotismo fin de siglo*, 14.

주로 사랑하는 대상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며 자신의 악행을 외형적 매력으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겠다. 이러한 악자적 여성에 대립되는 여성상으로 이어서 살펴보게 될 낭만적 여성이 있다.

2. 낭만적 여성

루벤 다리오의 단편에서 낭만적 성격을 보이는 여성인물들은 흔히 사랑에 관한 주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여성들은 주로 사랑문제에서 상대 남성들이나 어긋나는 주변상황에 의해 불가피하게 희생자가 되며, 그 과정 속에서 여성인물을 통해 낭만주의에 대한 작가의 이상이 드러나게 된다. 때로는 낭만주의의 계승자이기도 한 모데르니스모적 요소들이 혼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작품을 통해서 살펴보면, 단편 「새해는 항상 푸르다 El año que viene siempre es azul」에 등장하는 주인공(익명의 소녀)을 예로 들 수 있다. 금발머리에 연약한 외모를 한 아름다운 소녀는 항구에서 우연히 만난 청년과 사랑에 빠진다. 첫사랑인 만큼 그녀는 순정을 바쳐 그를 사랑하지만 시간이 흘러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연인과 떨어지게 되자 마음의 병을 얻는다. 이는 곧 육체의 병으로 이어져 끝내 죽음을 맞게 된다.

> 연약한 소녀는 폐병에 걸렸다. 아무리 금, 비단, 대리석과 같은 호화롭고 풍요로움에 둘러싸인 그녀라고 해도 마치 화분에서 꽃 한 송이를 낚아채듯 죽음은 그녀를 데려가고 말았다. 창백한 별이여! 그 매혹적이었던 빛은 무덤가에 내려앉았고 밀감 꽃으로 만든 화관과 흰색의 베일은 현실로 다가왔다(149).

이렇듯, 소녀의 죽음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에 기인함으로써 전형적인 낭만주의적 성격을 보이는데, 릴리 리트박에 의하면 죽음, 병, 수척함

등은 현실적 상황을 극적으로 표현하는데 유용한 수단이며 사랑과 죽음의 연관성은 낭만주의 시대가 추구하던 미학으로서 역설적이고 기괴한 조합을 보여준다.[12] 이러한 특성 외에도 작품에 나타나는 여성인물의 여리고 나약한 외모에서도 낭만주의적 여성상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한스 힌터하우저의 설명에 따르면 "악자적 여성"이라는 인물유형이 발견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에 상반된 여성상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19세기말의 또 다른 대표적 여성상인 연약하고 영적이며 천상의 모습을 한 여성이다.[13] 이러한 약한 여성의 일반적인 특징은 주인공으로서 주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 정적이고 묘사적인 이미지를 통하여 주로 나타난다. 따라서 작품 속에서 관찰되는 대부분의 "약한 여성"은 인물의 행동이나 성격의 내적 전개보다는 시각적 인상이 더욱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14]

"약한 여성"의 또 다른 예는 단편 「태양의 궁전 El palacio del sol」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인공 베르따(Berta)는 이름 모를 병에 걸려 가족들의 걱정을 산다. 많은 의사들의 진찰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병세는 하루하루 더욱 악화된다. 베르따의 연약하고 여린 모습은 마치 한 송이 꽃과 같이 덧없이 짧은 생명력과 불안정함을 떠올리게 한다. 한편으로 여성들의 이러한 연약함과 불안정성은 남성들로 하여금 더욱 더 그녀들을 갈구하는 대상으로 만든다. 다음에서 보듯이, 올리브색 눈동자를 가진 풋풋한 소녀였던 베르따의 나날이 시들어가는 모습 속에서 깊은 슬픔과 처연함이 묻어난다.

그 어떤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 주위는 어두웠고 슬픔은

12) Ibid., 145.
13) Hans Hinterhäuser(1980), op.cit., 92.
14) Ibid., 116.

>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상아처럼 창백한 베르따는 어느 날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 모두들 그녀를 위해 울었으며, 건강하고 감정이 풍부한 그녀의 어머니는 처녀들의 관에 사용하는 흰색의 야자수 잎들을 생각해야만했다. 그날도 베르따는 힘없이 늘어진 몸으로 홀로 정원에 나왔고, 평상시와 같이 동이 틀 무렵 우수에 찬 멍한 모습으로 한숨지으며 여기저기 서성이고 있었다. 정원의 꽃들은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슬펐다(108).

단편「필로멜라 수녀 Sor Filomela」와「로사 숙모 Mi tía Rosa」에서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두 명의 여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들 모두 사랑으로 인해 좌절감을 느끼고 고통스런 삶을 사는 낭만적 여성의 전형을 보여준다. 전자에서는 에글란띠나(Eglantina)라는 촉망받는 소프라노 가수가 필로멜라란 이름으로 수녀가 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소개된다. 전 세계를 무대로 성공적인 예술가의 삶을 살던 그녀는 어느 날 사촌인 빠블로(Pablo)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미래를 약속한 그들은 Pablo의 급작스런 죽음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혼자 남겨진 에글란띠나는 삶에 대한 환멸과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절망감으로 인해 수녀원으로 들어간다. 연인의 죽음 앞에서는 예술도 미래도 그 빛을 잃고 고통만이 그녀를 지배한다. 유일한 해결책은 신에게로의 귀의이다.

> 그녀의 입술에서 모든 슬픔들의 신음이며 모든 절망들의 고통스런 노래인 이별의 슬픈 노랫가락이 떨리듯 울렸다. 그리고 가슴 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녀는 자신이 이미 이 땅에서는 어떠한 사랑과 환상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그녀는 단지 마리아와 예수에게서만 정신적 위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310).

후자인 단편 「로사 숙모」에는 부모의 반대로 사랑을 포기 할 상황에 놓인 조카에게 숙모인 로사가 자신의 실패한 사랑이야기를 들려주며 반면교사(反面教師)로 삼을 것을 충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여주인공은 연인의 죽음으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채 평생을 독신으로 늙어가는 불행한 삶을 산다. 로사는 고통 속에서 옛사랑에 대한 추억만을 간직하며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 그녀의 유일한 즐거움은 사랑하는 조카들을 자식처럼 보살피는 일이다. 다음 예문에서는 로사의 고독한 삶이 처연한 모습과 함께 조카의 입을 통해 전해진다.

> 그녀의 머리카락은 이미 흰색으로 물들었고, 육체는 좋은 시절의 활기를 모두 잃어버렸다. 그러나 창백하기는 하지만 얼굴에는 아직도 사과의 상쾌함이 살짝 남아있었다. 또한 그녀는 덧없고 우수에 젖은 미소로 희미하게 빛나는 위엄 있는 수도원장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로사 숙모는 모든 참한 아가씨들 사이에서 돋보이는 한 송이 장미 같았던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애인은 숙모의 가족들에게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애인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결혼식은 영원히 묻혀버렸다. 너무나 아름다웠던 숙모는 점점 시들고, 시들고, 시들어 갔다(405).

두 편의 작품을 통해 살펴 본 낭만적 여성은 공통적으로 연인의 죽음으로 인한 사랑의 고통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자포자기적 삶을 살아가는 일종의 희생자로 비춰진다. 비평가 라파엘 아르구욜(Rafael Argullol)의 용어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여성은 “사랑에 빠진 낭만적 여성(enamorada romántica)”으로 불리며 결실을 맺지 못한 사랑으로 인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여성으로 평가된다.[15]

---

15) Rafael Argullol(1982), *El héroe y el único: El espíritu trágico del Romanticismo,* 286.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루벤 다리오의 단편작품 속에 등장하는 낭만적 여성은 질병이나 사랑으로 고통 받는 "약한 여성"의 이미지를 보이는 한편 죽음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19세기 말의 문학경향과도 관계가 있어서 이 유형의 여성들의 존재는 단지 사랑과 죽음이라는 두 가지 명제로 항상 귀결된다. 이는 앞서 살펴 본 여성인물 유형인 악자적 여성과 대조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사랑을 유희적으로 해석하여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가해자가 아닌 불가피한 주변상황과 지고지순한 사랑의 희생자로 묘사된다.

3. 이상적 여성

일반적으로 모데르니스모 작가들에게 이상적 여성이란 신성함과 동일시되는 경향이 짙다. 루벤 다리오의 작품 속에서 관찰되는 이 유형의 여성들은 흔히 여신에 비유될 만한 천상의 아름다움과 순수함을 가진 여인들로서 이는 영원한 여성성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전형적인 모데르니스모적 여인상으로 보이는 이상적 여성은 그 외형적 특징에서 역시 백합, 백조, 조각상 등과 같은 모데르니스모적 상징과 비유가 묻어난다. 예를 들자면, 단편 「요정 La ninfa」에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요정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은 모든 이들이 꿈꾸지만 결코 닿을 수 없는 몽환적 모습이다.

> 연못의 한가운데에는 소스라치게 놀란 백조들의 소요 사이로 한 요정, 진짜 요정이 유리알처럼 투명한 물속에 자신의 장밋빛 육체를 담그고 있었다. 거품이 표면을 장식하고 있는 그녀의 허리 부분은 나뭇잎들의 틈새로 새어 들어온 희미한 빛으로 인해 황금색으로 물들어 있는 듯 했다. 아! 나는 백합들, 장미들, 순백의 눈, 황금을 보았고 살아 숨 쉬는 이상을 보았으며 소리 내며 흐르는

> 맑은 물의 경쾌한 거품사이로 나의 피를 끓게 하는 듣기 좋고 익살스러운 웃음소리를 들었다(135).

또 다른 이상적 여성의 예로 단편 「맙(Mab) 여왕의 베일 El velo de la reina Mab」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맙 여왕의 이미지는 숭고한 정신과 예술의 상징으로 비춰진다. 특히 불행한 사람들에게는 위안을 가져다주고, 가난한 예술가들에게는 그들의 꿈의 완벽한 실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상의 화신으로 자리매김한다. 작품 속에서 조각가, 화가, 음악가, 시인으로 대표되는 네 명의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예술적 이상과 세상과의 괴리감으로 인해 실의에 빠져있자 요정인 맙 여왕은 창문을 통해 그들의 다락방으로 들어가 그들의 고민과 한탄을 경청한다. 결국 예술가들은 여왕의 도움으로 불행한 삶 속에서 희망을 찾고 각자의 예술에 대한 열정을 회복한다.

> 맙 여왕은 진주로만 만들어진 자신의 마차 안쪽에서 푸른색 베일을 하나 집어 들었다. 그 베일은 온갖 한탄들이나 금발의 사색적 천사들의 눈길로 만들어진 것 같았으며 거의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무형의 것이었다. 또한 그것은 꿈들, 특히 장밋빛 인생을 보게 만드는 달콤한 꿈들의 베일이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그것으로 야위고 무례하며 수염이 덥수룩한 네 명의 남자들을 감쌌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슬픔에 젖어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슴에는 희망이 머리에는 밝은 태양이 스며들어 가련한 예술가들이 느끼는 깊은 환멸을 위로해 주었기 때문이다(126).

이렇듯, 이상적 여성의 이미지는 주로 요정과 같은 비현실적인 인물로 비춰지며 천상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운 능력을 소유한 특별한 존재로 인식된다. 가끔은 이상적 여성이 현실세계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듯이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는데, 단편 「와토(Watteau)의 초상화 Un

retrato de Watteau」에 등장하는 메인테논(Maintenon)부인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녀는 당대의 유명한 화가인 와토의 초상화 속에서 상류사회 귀부인의 품위와 아름다움을 빛내는 한편 현실의 많은 여성들이 꿈꾸는 외모와 사회적 지위를 지님으로써 앞에서 살펴 본 추상적 이미지의 이상적 여성과 구별된다. 특히, 파티를 앞두고 화려하게 단장하는 모습이 묘사되는 대목에서는 한 여인의 관능적 아름다움이 이국적인 색채로 강조된다.

> 모든 것이 완벽하다, 분칠을 한 채 말아 올린 머리장식은 온통 동양적인 히브리의 멋을 지녔고, 넓고 하트모양인 브래지어의 깃 장식은 윤기 있고 단단한 젖가슴의 시작부분까지 보이게 했으며 벌어진 소매는 유혹적인 흰 피부를 드러내고 있었다. 또한 균형감 있게 조여진 허리와 풍성한 스커트, 그리고 빨간 굽의 구두 속에 감춰진 작은 발 등이 그녀의 모든 것을 완성시켜 주었다. 저 촉촉이 젖은 파란 눈과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짓고 있는 경이로운 그림 속의 입술을 보라. 그 입술은 아마도 목가적이거나 신화적인 인물들이 그려져 있는 융단 옆에서 사랑의 소야곡을 암송하는 멋진 사랑의 기억 속에 존재할 것 같은, 혹은 어둠 속에서 어떤 숲의 신의 조각상 뒤에서 은밀하게 나누는 키스의 기억 속에 등장할 것 같은 입술이다(119).

이와 같이, 작품을 통하여 살펴 본 이상적 여성은 천상의 영역과 지상의 영역, 이 두 개의 세계를 모두 포함하는 특징을 보인다. 전자에서는 여성의 이미지가 주로 신성함이나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아름다움과 연관되면서 모데르니스모 작가들의 이상적 여성상을 보여준다. 한편, 후자에서는 현실세계의 안락함이나 풍요로움에서 비롯된 여유 있는 여인의 인간적 아름다움과 행복이 그려진다. 따라서 이상적 여성은 다른 여성인물들과는 달리 독립적이고 예술과 밀접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여성

인물의 범주 안에서 가장 모데르니스모적 여성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가끔은 악자적 여성의 특징인 관능적 이미지와 빼어난 아름다움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여성의 순수함과 신성함, 그리고 예술성 등이 이들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

Ⅳ. 아동인물과 사회고발

루벤 다리오의 다른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아동인물 역시 비극적 삶의 조건으로 인한 부정적 시각에 초점이 맞춰진다. 아동들의 문제는 루벤 다리오뿐만 아니라 다른 모데르니스모 작가들, 특히 구띠에레스 나헤라(Gutiérrez Nájera), 호세 마르띠(José Martí), 아마도 네르보(Amado Nervo), 디아스 로드리게스(Díaz Rodríguez), 레오뽈도 루고네스(Leopoldo Lugones) 등의 작품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매력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이 가운데 마르띠는 교훈적인 경향을, 네르보나 다리오, 나헤라 등은 비판적 경향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16] 따라서 아동들의 세계를 다룬 루벤 다리오 단편들의 대부분은 고통과 불행으로 점철된 삶을 사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아동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함으로써 작품전반에 걸친 분위기는 상당히 어둡고 스산하다. 특히 이들은 주로 죽음과 연관된 인물들로 그려지며 이는 비극적 상황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희생양이 되는 불합리한 사회에 대한 분노와 반항이 일고 이것은 곧 사회고발로 이어진다.

단편 「화물 El fardo」에서 이름도 없이 단지 루까스(Lucas)의 아들로만 명시된 아동인물은 위의 특징들을 대변한다. 절대가난 속에서 늙고 병든

16) María de los Desamparados Muños Reoyo(1986), op.cit., 328.

아버지를 도와 부두에서 짐을 나르는 열 살 남짓한 소년은 허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부모와 많은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 어려서부터 공부를 포기하고 일을 해야만 하는 불가항력적 삶에 직면한다. 사고 당일도 병석에 누운 아버지의 약값을 위해 아침도 굶은 채 일터로 나간 소년은 현기증을 안고 무리한 노역을 하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다.

> 뱃사람들은 일어선 채로 엄청난 무게의 짐이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육지로 가기위해 준비할 때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였다. 화물, 묵직하고 부피가 큰 화물이 마치 헐거운 개 목걸이로부터 개가 머리를 빼내 듯 매듭에서 벗겨져 루까스의 아들위로 덮쳤다. 배와 추락한 화물사이에서 소년의 하복부와 척추는 으깨졌으며 입으로는 검은 피가 흘러나왔다(105-106).

또 다른 예로, 단편 「구두약과 피 Betún y sangre」에서는 부모 없이 할머니와 함께 불우한 환경 속에서 씩씩하게 살아가는 뻬리낀(Periquín)이라는 열두 살 소년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여기에서도 소년은 가난과 애정결핍이 빚어낸 적대적 현실과 맞서며 구두닦이로 할머니를 봉양한다. 그러나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에 의해 착취당하고 학대받는 모습을 통해 비인간적인 가족관계와 냉엄한 사회 속에서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연약한 존재로서의 인물 특성이 부각된다. 어느 하루, 구멍이 난 바지주머니 때문에 구두를 닦고 벌어온 돈을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귀가하면서 할머니로부터 온갖 모욕과 구타를 당하는 장면은 아동학대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하다.

> 소년은 우쭐대는 만족감의 몸짓을 하고 구두상자를 던지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아무 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뻬리낀은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몸을 떨었다: 바지주머니에 구멍이 나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노파는 말하기를 -아, 철

> 면피, 깡패, 멍청이, 짐승 같으니! 상스러운 놈! 이제 어디 두고 보자! 그러더니 정말로 몽둥이를 손에 쥐고 가엾은 아이에게 몽둥이질을 해댔다: -인간 같지 않으니 맞아라! 거짓말쟁이니 또 맞아라!(215)

이와 같이 루벤 다리오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아동들의 문제에 관심을 보이며 이를 통해 사회고발의 한 방편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부당하고 냉정한 사회를 향한 강한 불만과 더불어 조소적이고 때로는 교훈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작품 속에서 아동인물들은 한계상황에 놓인 무방비 상태의 사회적 희생양으로 탈바꿈되며 이들의 운명은 항상 비극으로 점철된다.

Ⅴ. 동물 및 사물

모데르니스모 산문에서 인물로서의 동물이나 사물은 또 하나의 매력적인 대상으로 자리 잡는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들 비인격 인물들은 인간들에게 교훈을 주는 우화적 성격을 보이며 작품 속에서 주요 등장인물로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비록 외양적으로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이 수행하는 것과 같은 비중 있는 기능을 한다. 때로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조연이나 객체가 되어 작품의 흐름을 주도하기도 한다.[17] 다리오의 단편들 가운데 「맹인의 개 El perro del ciego」를 대표적인 예로 살펴보자면, 보잘 것 없는 한 늙은 맹인의 인도 견으로 라사리요(Lazarillo)로 비유되는 레온(León)이라는 이름의 충견이 주요인물로 등장한다. 그러나 빠꼬(Paco)라는 동네의 악

17) Ibid., 349.

동이 저지른 끔찍한 장난으로 인해 죽음을 맞는 레온은 이성적인 인간들에게 힘없고 불쌍한 한 비이성적인 동물이 교훈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음 예문에서는 인간의 사악함과 온순한 동물의 비참한 최후가 대비되어 묘사됨으로써 인간들의 반성을 이끌어 내는 극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 빠꼬는 냉소적이고 철면피 같은 모습을 보이며 특유의 째지는 음성으로 맹인 앞에서 어떻게 레온이 죽음을 맞게 되었는지 주절거리기 시작했다. -아주 간단하죠, 유리를 집어서 가루를 낸 다음 그것을 고기사이에 끼워 넣었고 그 개가 그걸 몽땅 먹어치웠죠. 그러더니 곧 춤을 추듯이 발광을 했고 그 후론 아저씨를 데리고 다닐 수 없게 된 거죠- 그는 불행한 노인에게 웃음을 머금으며 개가 마지막으로 다리를 길게 늘어뜨린 채 굳어버린 시늉을 태연하게 해가며 상황을 재연했다(172).

한편, 일상생활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용도의 사물들 또한 인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들을 통해 작가는 작품 속에서 그 당시 사회상을 묘사하기도 하고 지역적인 풍경을 담아내기도 한다. 따라서 이국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가 펼쳐지는 가운데 좀 더 독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문학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요소가 적절히 결합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동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물들 역시 이야기의 중심이 되거나 주요 인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먼저, 다리오의 단편 「어느 외투에 관한 이야기 Historia de un sobretodo」에서는 중미 출신인 루벤 다리오 자신이 칠레에 머물 때 생경한 추위를 맞으면서 외투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느낀 점들이 경험담을 통해 소개된다. 추위로 인해 인연을 맺게 된 루벤 다리오와 그의 외투는 하나가 되어 칠레의 곳곳을 여행하며 그곳 사람들과 풍경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서 외투는 주요 등장인물의 역할을 수행하며 주인과 일종의 모험을 떠나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유지한다.

> 그(외투)는 조폐국 건물에서 부터 산티아고의 변두리지역들까지 샅샅이 알게 되었다. 그는 폐렴이 조심성 없이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괴롭힐 때도 유유히 산티아고의 겨울밤들을 쏘다녔다. 그리고 끔찍하고 무서운 콜레라가 칠레전체를 물들였을 때는 시체들을 실어 나르는 구급차와 비탄에 젖은 텅 빈 밤거리들을 목격하기도 했다(239).

또 다른 단편 「대령의 고기단자들 Las albóndigas del coronel」에서는 음식의 일종인 고기단자들이 작품의 흐름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물로서의 가치를 보여준다. 니카라과의 전통음식으로 굳어진 고기단자 요리의 유래가 소개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한 단면이 드러난다. 이야기는 스페인 식민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실제로 레온(León)지방의 통치자였던 아르레차발라(Arrechavala)대령의 유별난 고기단자 사랑을 다룬다. 인근 마을에 살던 한 스페인 대위의 미망인인 마리아부인이 만든 고기단자 요리를 우연히 먹어본 대령은 그날 이후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자 일상이 되어버린 이 음식에 중독된다. 매일 마리아의 집에 들러 값비싼 보석들을 선물하면서까지 고기단자에 집착하는 대령의 독특한 음식취향에 관한 에피소드가 사람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전해지며 지금은 니카라과의 전통요리 중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된다. 다음 예문은 고기단자가 대령에게 갖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 대령은 고기단자들을 먹을 때마다 손가락을 빨았으며 그것을 만든 마리아부인에게 자신의 영혼과 삶과 위장을 바칠 만큼 고마

> 워했다. 게다가 심지어는 한 접시의 고기단자 요리마다 옷이며, 머리장식, 팔찌, 반지 등 귀중품들을 그녀에게 선사하여 그녀가 자진하여 더욱 더 열심히 정성스런 고기단자 요리를 만들도록 했다(85).

이상에서 보듯이, 동물이나 사물과 같은 비인격적 인물들은 대체적으로 상징적의미를 지니며 사회에 대한 작가의 교훈이나 풍자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이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풍속주의의 한 단면을 보여주듯 사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묘사하고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루벤 다리오는 이러한 과정에서도 이국적 색채나 문학적 감성을 배제하지 않고 작품을 환상적 분위기로 이끈다.

Ⅵ.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루벤 다리오의 단편소설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여러 인물유형들 가운데 댄디와 보헤미안으로 대표되는 남성인물은 19세기말의 부르주아 사회 속에서 비관적이고 아웃사이더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비록 가끔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특징을 통해 초기 모데르니스모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여성인물의 경우에는 루벤 다리오의 예술적 영감이 가장 풍부하게 묻어나는 인물유형으로, 여주인공들에게서는 악자적 성격과 낭만적 성격이 공존하는 이중적 경향이 보인다. 모데르니스모의 전형적인 여성상이라 할 수 있는 악자 적 여성은 사악함과 교활함으로 특징지어 지고, 낭만적 여성은 연약함과 희생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대변한다. 반면에 이상적 여성은 예술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모데르니스모 작가

들이 주로 작품 속에 담고 싶어 하는 가장 이상적인 여성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아동인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인공들이 사회적 부당함과 고통스런 삶의 조건들로 인해 비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루벤 다리오는 사회적 약자이며 희생자이기도 한 아동들의 불행한 삶을 통해 세상을 향한 일종의 사회고발을 시도한다. 예외적으로, 비인격적 인물인 동물과 사물도 모데르니스모 인물유형에 포함되는데, 동물은 주로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교훈적인 성격을 짙게 보여주고 사물은 상징성과 이국주의를 바탕으로 사회 안의 다양한 모습들을 담아낸다.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루벤 다리오의 단편에 나타난 인물유형들의 연구를 통하여 각각의 인물들에게 모데르니스모와 낭만주의 경향이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루벤 다리오의 문학이 낭만주의에서 모데르니스모로 옮겨가고 발전되어 가는 과정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두 가지 주요 문학경향 외에도 루벤 다리오의 단편에는 사실주의나 풍속주의 같은 19세기의 또 다른 문학흐름들도 엿보이는데, 아동인물과 동물을 통한 사회고발에서는 사실주의적 성격이 두드러지고 사물을 통해서는 풍속주의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듯, 전 시대에서부터 동시대까지의 다양한 문학경향들의 조화를 통해 루벤 다리오는 중남미 모데르니스모의 성공적인 선봉자로 자리매김한다.

참고문헌

Argullol, Rafael(1982), *El héroe y el único: El espíritu trágico del Romanticismo:* Taurus.

Darío, Rubén(1950), *Cuentos completos:* Fondo de Cultura Económica.
_____(1982), *Cuentos fantásticos:* Alianza.
_____(1995), *Cantos de vida y esperanza:* Espasa Calpe.
_____(1995), *Páginas Escogidas:* Cátedra.
_____(1997), *Cuentos:* Cátedra.
González, Aníbal(1987), *La novela modernista hispanoamericana:* Gredos.
Gullön, Ricardo(1983), *Simbolismo y Modernismo:* Universidad de Oviedo.
_____(1990), *Direcciones del Modernismo:* Alianza.
Gutiérrez Girardot, Rafael(1983), *Modernismo:* Montesinos.
Hinterhäuser, Hans(1980), *Fin de siglo: Figuras y mitos:* Taurus.
Jrade, Cathy Login(1986), *Rubén Darío y la búsqueda romántica de la unidad:* Fondo de Cultura Económica.
Litvak, Lily(1979), *Erotismo fin de siglo:* Bosch.
Marini-Palmieri, Enrique(1989), *Cuentos modernistas hispanoamericanos:* Castalia.
Monguió, Luis(1986), "Reconsideración del Modernismo hispanoamericano", *Anuario de Letras,* v.24.
Muñoz Reoyo, María de los Desamparados(1986), *Los personajes en la narrativa modernista hispanoamericana:* Tesis doctoral de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Oviedo Pérez de Tudela, Rocío(1989), "Recreación del pasado y representación en la obra de Rubén Darío", en *Anales de Literatura hispanoamericana,* Núm.18.
Villena, Luis Antonio de(1983), *Corsario de guante amarillo:* Tusquets.
_____(1985), *Estetas y decadentes:* Tablate Miquis.

_____(1988), *Máscaras y formas del fin de siglo:* Dragón.

논문투고일자: 2010년 10월 31일
심사완료일자: 2010년 12월 13일
게재확정일자: 2010년 12월 21일